

어가 27% 역대 수입...어민 성공시대 열어준 '바다산삼'



강진군 미량면의 한 양식어가에서 전복을 수확하고 있다. 전남이 국내 생산량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전복은 FTA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몇 안되는 국내 수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억5000만. 라틴아메리카(중남미) 33개국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다.

완도에서 양식하는 전복은 4억5586만 마리로 추정된다. 장흥 인구보다 한우 사육두수가 더 많은 것처럼 완도 전복양식 마릿수가 중남미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다. 전복하면 전남을 떠올리고 구체적으로는 완도를 연상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수산물 양식의 대표적인 전북산업은 지난 10년간 25배나 성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01년 자연산과 소규모 양식으로 연간 95

산지다.

전남의 전복산업이 급성장한데는 2001년 가두리양식이 보급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이다. 웰빙바람을 타고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계는 리도 전복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급량보다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생산량 증가에도 전복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07년 kg당 15마리 짜리의

에 있다.

완도에선 대기권 연구소나 서울 유명대학 로스쿨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전복양식으로 부를 일군 젊은이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노화도에 고급 외제차는 물론 육지에 나가 백화점 쇼핑과 골프를 즐기는 부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전복이 가져다 준 변화다.

전복산업의 미래도 밝은 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5만1462t에 2조4000억원 규모인 세계 전복 소비량이 조만간 10만t 이상으로 커지면서 시장 규모도 4조6981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전복 수입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득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도 전망을 밝게하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장에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복양식은 전통적으로 생산자들의 조직화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수출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활전복이고 가공식품 개발이 안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수출물량의 99%가 일본에 치우쳐 있고, 일본의 소비량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른 점은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가 절실한 이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정봉 수산연구본부장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선진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기업화가 필요하다"면서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일원화된 수출전용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년새 25배 급성장...세계 생산량 10% 점유 공급량 80% 완도, 외제차 타는 부자들 넘쳐나 기업화·수출 다변화·가공식품 개발 등은 과제

에 101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전복산업이 2011년에는 6941t에 2514억원으로 생산액 기준으로 25배나 늘었다. 세계 전복 생산량의 10%를 점유해 중국에 이어 2위 생산국이 됐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연간 6785t에 2391억원이 생산돼 전국대비 비중이 각각 98%(생산량)와 95%(생산액)를 차지하고 있다. 완도는 전복 양식면적 기준으로 전국대비 77%, 양식량으로는 68.8%, 공급량에서는 80% 가량을 점유할 정도로 전국 최대

가격은 3만원에서 올해 9월 4만1500원으로 38.3% 올랐고, kg당 8마리 짜리는 같은 기간 4만9000원에서 7만4667원으로 52.3%나 급증했다.

생산량 증가에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전복을 키우면 부자가 된다는 공식이 성립됐다. 단적인 사례가 완도 어민들의 역대부농 비율이다. 전남에서 현재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2220 어가 가운데 전복 양식 어가는 27%인 590가구다. 특히 전복 양식 역대 어가의 76.4%인 451가구가 완도

■ 완도전복주식회사

어민 주주참여...작년 220억 매출 3년새 440% ↑

전남 유통회사중 유일 흑자

완도 전복의 명성뒤에는 어업인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완도전복주식회사가 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2009년 3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 이익 증대와 해외시장 개척 및 상품개발로 소비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어업인과 완도군, 수협 등 615명이 34억4000만원을 출자해 만든 이 회사는 유통구조 개선으로 어업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면서 현재는 출자자 수 1212명에 자본금 88억1100만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매출액은 첫째 106t에 46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74t에 220억원으로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440%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매출액도 820t에 3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으로 가장 큰 수혜

■ 성공비결

- 유통과정 덤·편차 관행 없애
- 결제 7일로 단축 금리 효과
- 약정계약으로 수급 안정화
- 사과 판매계약...수출선 확보

를 보는 사람들은 생산자들이다. 이 회사 설립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유통독과점 폐해가 사라졌다. 유통업자에게 30%까지 얹어주던 덤 물량이 12.5%로 줄고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을 이유로 9마리 가격에 10마리를 주던 '편차'도 없어졌다. 그 결과 생산자들은 3년간 덤으로 880억원, 편차로 332억원 등 총 1212억원의 이익을 보

게 됐다는 것이 완도군의 설명이다.

유통업자들로부터 2~4개월만에 받던 대금결제 기간도 평균 7일로 단축돼 45억원의 금리 효과를 얻게 됐다. 계획적인 원물구매를 위해 9개 어촌계와 전복 구매약정을 체결해 수급의 안정화를 꾀했고 일본 전복시장 점유율 1위 업체와 판매계약을 맺어 고정 수출선도 확보했다.

전남의 12개 시군 유통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 전환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점도 어업인 주식회사가 성공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이석규 대표이사는 "전복가공시설과 전복 전문식당을 1곳씩 더 지어 내년에는 매출액 4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메이저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확대와 함께 해외시장 가운데서는 중화권 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